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시울코리아 가 함께 응원합니다.

제 1319 호 (2023년 8월 1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파주운정·남양주별내…철근 빼먹은 LH 아파트 명단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 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빼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은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5개 단지는 이미 입주…3개 단지 입주 중

이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 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 한 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빼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견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레이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레이브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는데, 이를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 송원기 기자

Photo News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호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호우로 주택 파손시 최대 1억300만원 금주부터 지급…소상공인도 700만원씩

침수피해 지원금도 300만→600만원

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 별로 5천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준보다 최대 6천700만원 많은 1억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천만원에서 3천600만원이 주어졌었는데, 위로금 3천100만원~6천700만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추경 없이 재난대책비·예비비로 재원 확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이 가동됐던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대상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오퍼어’(Au Pair)는 문화 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제도로, 외국인은 해당국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면서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언어도 배울 수 있다.

/ 박경원 기자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00만원에서 2천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 규모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 2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

를 받을 수 있다.

/ 김은성 기자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재수사요청 미이행시 검찰 송치

수사준칙 입법예고…송치요건에 ‘혐의 관련사항 미이행’ 추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단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 까지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

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한도 정비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수사 사건 송치요구 요건 개정과 관련해서는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실련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LH 전관특혜 탓”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라면서 3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지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어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감사원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종합심사 낙찰제(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시정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감사원이 LH뿐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확대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021년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LH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한 곳에 ‘돌아주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LH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H는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 및 감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가 없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현욱 기자

“심뇌혈관질환, 권역별 의사 네트워크로 골든타임 내 치료”

2차 종합계획…“전문의들 소통해 환자 이송 병원 결정”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중증·증급 심뇌혈관질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권역별 의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진료와 수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전문의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의 일환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인 심장질환과 4위 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차 종합계획(2018~2022년)은 예방관리 대책 위주로 마련돼 중증·증급 진료체계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120분, 뇌졸중 180분 등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지만,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른바 ‘응급실 뻥튀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심근경색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할 확률은 작년 기준 48%, 뇌졸중은 52%에 불과하다.

정부는 권역 내 전문의들이 직접 소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신속하게 정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병원에 도착할 확률을 심근경색 58%, 뇌졸중 62% 등 10%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한숙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지역 의료 인프라에 따라 이송 시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제적 골든타임 기준인 증상 발생 후 6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율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등 최소 7인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송수신비, 환자 이송 경로설정 수당 등의 비용은 정부가 사전에 100% 보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네트워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 해당 네트워크는 사업 대상에서 탈락한다.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 네트워크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 오정수 기자

모두가 하나되어 산업재해 철벽방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김영호,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사실관계 확인해 원칙적 대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을 상대로 한 개성공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우선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현충원 참배 후,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물 무단 사용에 관해 법적 조처를 검토하는지 기자들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3년 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금강산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겠습니다”라고 썼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장관이 31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그는 “오늘 현충원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남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대해 통일부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대화·교류·협력분

야 조직을 중심으로 정원 약 15%를 줄여 남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과장급 남북자 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 김정균 기자

했다. 다만 이는 주식 가격과 호가가 자연 표시된 것으로 매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매매가 체결된 후 진행되는 시장 정보 분배 시스템을 코스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일부에 오류가 생긴 것”이라며 “거래소의 매매체결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고 오전 9시 15분께 모두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회사 자체 문제인지, 통신사 등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 윤종민 기자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등 4개(실장급 1개, 국장급 3개) 조직이 국장급 소속기관으로 통폐합되고,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실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통일부 조직개편안이 ‘남북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김 장관은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중 개방의 문제라든지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에 그것(대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대화 단절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항상 대화와 관련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전국 교사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3차 집회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후 교사들이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주에도 열릴 계획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토요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교사들의 1차 집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각 보신각 앞에서 열렸으며, 2차 집회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렸다. 참여 규모는 점점 늘고 있는데 1차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5천 명이, 2차 집회에는 3만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후 당국에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알리고 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

풀’에는 전날 “3차 집회에 함께 해달라. 오늘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최 측은 집회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에 오는 교사들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 역시 노동조합이나 교원 단체의 도움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집회가 매주 거듭되면서 시간을 내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뉴스에서 집회를 접하는 대중의 피로감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것이 갖는 울림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원 커뮤니티에서는 사망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이어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곽동현 기자

증시 개장 직후 호가 ‘먹통’…코스콤 오류에 투자자 분통

코스피 8분·코스닥 12분간 오류…거래소 “매매 체결에 문제 없어”

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의 전산 오류로 31일 주식시장 개장 직후 10여분 간 투자자들이 실시간 가격 정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이 차전지 종목들 위주로 급등락 장세가 이어진 데다가 거래량이 몰리는 시간 대에 호가창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개장 직후부터 국내 주식 체결 시세

관련 데이터가 각 증권사 시스템에 전송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IT 자회사 코스콤에서 발생한 오류에 따른 것으로, 모든 증권사가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 증권사에 접수된 투자자들의 호가는 거래소의 매매체결 시스템 ‘매칭 엔진’에서 처리되고 난 뒤 코스콤의 시장 정보 분배 시스템을 통해 표시되는데, 코스콤의 시세 분배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해 증권사들의 호가가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오전 9시 8분까지, 코스닥시장은 4분 뒤인 12분까지 시세가 지연 표시됐으며 현재는 모두 정상화된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휴트레이딩시스템(HTS) 모두 코스피 및 코스닥 종목 매매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다”고 말

했다.

폭력조직 가입에 문신은 필수…검찰, 불법시술자 무더기 기소

집단난투 조폭 처분 과정서 수사 확대…마약류 진통제도 소지



문신 드리내고 거리 활보하는 폭력조직원들

조직폭력배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문신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집단 난투를 벌인 폭력조직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신이 폭력조직 가입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했다.

/ 황규성 기자

이태원 유족 “특별법 제정에 모든 기대 걸어”

유가협 2기 운영위원회 활동 시작…하반기 활동계획 발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은 31일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연기자회견에서 2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기 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유가족 전체가 모인 임시총회에서 선출됐으며 10명으로 구성됐다.

고(故) 이주영 씨의 부친인 이정민 유

가협 대표직무대행이 2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고 유연주 씨의 부친 유형우 씨와 고 박기영 씨의 모친 최선미 씨가 부위원장장을 맡았다.

최 부위원장은 “이 모든 역할을 해소 할 마지막 보루로 이태원 특별법에 모든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신속히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족을 잊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가협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8월 7~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엽서를 보내는 캠페인을 하고 22~24일 4대 종단 종교인·시민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오체 투지로 행진한다. 오체투지 마지막 날에는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 추모제를 연다.

/ 남호정 기자

설렘을 찾아서, 인천공항 Check-in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순간들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특별했음을 알게 한 시간들
모두의 소중하고 조금은 특별했던 일상으로

다시 시작, 인천국제공항

한국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민주, 이동관 지명 ‘십자포화’…“李, 방송장악위원장 될 것”

‘청문회 보이콧’ 일축…“1년 내내 해도 모자라”, “당시 학교 이사장 김승유도 불러야”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인 이 후보자를 방송위원장을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가 더 이상 망사(亡事)가 돼

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면서 “끝까지 잘못

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검찰·감사원을 동원해 상대방을 겁박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윤석열 아바타가 등장했나 싶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도 도

마 위에 올랐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 재단 이사장

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 증거가 쏟

아졌다. 학생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자

보자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 학교폭력 사건 당시 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하나님용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시 학교에 재직했던 선생님들과 김 전 이사장도 불러야 한다”며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종합적으로 (사건을) 조명할 증인을 일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로드’로 규정하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공세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로드’ 이전 카르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선 “국민을 희롱하는 말장난을 그만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느냐. 대통령 일가 특혜를 위해 고속도로까지 훼어나간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하다.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오히려 청문회를 더 잘 준비해서 문제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될 국회 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애당 간사인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청

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해 여당과 이 후

녀 전학이 결정됐다는 (이 후보자) 해명

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지금까지 드

러난 것만 해도 방송위원장은 커녕 공직자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원 장관이 ‘여야 노선 겸증위원회’를 꾸리자고 제

안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원안을 변경한

의혹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원안으

로 추진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임형준 기자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양평고속도, 상임위·전문가 노선검증 투트랙으로 가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빨리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취해 정부를 훔들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정조사를 하려면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우리 당은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언제든지 민주당이 요구하면 열어서 민주당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와 별개로 노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어느 노선이 가장 합당한지를 검증하도록 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해서 빨리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고,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 송유영 기자

● 금융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고객과
상생하는 금융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상생금융

청년

- 청년 전월세대출 금리 최대 0.7% 인하
- 청년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마이신한포인트 0.3% 리워드
- 청년전용 특판적금 : 추가우대이율 최대 1.3%

어르신

- 창구 타행금융 수수료 / ATM 수수료 / 전자금융 수수료 및
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연금수급자 전용적금 : 추가우대이율 최대 3.5%
- 연금대출 : 4대 공적연금 수급자 대상 생활자금 신용대출

소상공인 / 중소기업

- 경기 억화로 금리 금동 시 금리 인상 폭 최대 3% 제한
- 7% 초과 대출 금리 최대 3% 지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협약으로 지원

서민 주거 / 생활 안정

-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대 0.4% 인하, 전세자금대출 금리 최대 0.3% 인하
- 역전세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특판 출시(2조 한도),
전세자금대출 금리 추가 0.3% 인하(2조 한도)
-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최대 1.5% 인하, 신용대출 금리 최대 0.4% 인하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상생금융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및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 전세 사기 피해 고객 전세구입시 금리 최대 2% 인하
- 전세 사기 피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비용 지원

재해·재난 피해자 금융 지원

- 개인(5천만 원 한도) / 소상공인·중소기업(5억 원 한도) 긴급 금융 지원 및
금리 최대 1.5% 인하

코로나19 유예종료 및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맞춤형 지원

- 채무조정 지원(상환기간 조정, 만기연장, 원리금 유예, 금리인하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당행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행정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 충분한 사항은 사전심사필 제2023-13447-1호(2023.07.28~2024.07.27)

국방부, 북러 무기거래 정황에 “불법 거래 즉각 중단해야”



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해상 운송 등을 통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규탄했으며,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외신 보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일부 보도에 ‘개연성이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이 인용됐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돼 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8월 예정된 연례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 등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영주 기자

유승민 “워낙 찍혀 공천 주겠나…총선, 모든 가능성 고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출마·신당 창당 설 등이 제기되는 것 관련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방송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권의 나팔수, 하수인이 되는 방송을 만들고 나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속해 쓴소리를 해온 유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기자들에게 향후 행보에 대해 “모든 가능

하고 앞으로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 불법·부패는 성역 없이 수사받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풍수지리가의 관저 방문 의혹 등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2년째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며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대통령 친인척·대통령실 직원들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항시 받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여야 노선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꼼수”라며 “노선을 결정·수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조영진 기자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보복인사에 사직 결심”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고 최근 경남경찰청 112차인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직서를 취재진에 들어 보이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고 최근 경남경찰청 112차인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직서를 취재진에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사직서를 내보이며 27일 단행된 경찰청의 총경급 인사가 ‘보복성 조치’라면서 사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참석자에게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누군가 ‘경찰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찰청장이 가진 총경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류 총경은 이날 경찰 내부 계시판에도 글을 올려 “저는 이제 사랑하는 경찰 조직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직의 뜻을 밝혔다.

류 총경은 게시판에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비록 저는 사랑하는 경찰을 떠나지만 앞으로 조직과 후배들 곁을 지키며 경찰 역사의 흐름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선배로서 주

여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12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데 이어 27일 경남경 112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

112 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다가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 경찰관도 보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으로 갓 승진한 초임 간부의 보직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찰 대 3년 선배이자 총경 8년 차인 류 총경이 112 상황팀장에 전보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방신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도 총경 회의 참석자들을 시도·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발령했다.

/ 송원기 기자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딸이 화천대유서 받은 11억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과 공모,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팔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 양정훈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전 ‘연필사건’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

통화·메신저·업무일지 확보해 사망 연관성 조사



지난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A씨와 학부모 사이에 통화가 수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A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

이 학부모는 극단적 선택의 계기로 지목되는 ‘연필 사건’ 당사자다.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긁는 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4일 학부모가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 전화했고, A

씨가 방학 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만 유족과 학부모 측 입장을 고려해 정확한 연락 횟수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A씨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 할 방침이다. 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 대화와 교내 유선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해 A씨 사망과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교내 폐쇄회로(CC)TV와 A씨의

업무용 PC, 업무일지, 개인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사망 전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이라는 허위 사실이 각각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인 두 의원 측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일기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족이 고소·고발할 경우 수사할 방침이다. / 박민준 기자

음주운전하다 차량 들이받고 집으로 도주한 30대 검거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하나병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현장에 버린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밀려난 스트레스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충격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거쳐 약 1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채정윤 기자

홀덤펍 불법도박 뿌리 뽑는다…연말까지 집중단속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한다. 이 칩을 다시 현금화하면 도박으로 간주된다. 칩을 환전하면 해당 금액만큼 판돈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본다.

불법도박을 조장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범죄 수익을 철저히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 계획이다.

지난 20일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 대응전담팀’을 구성한 뒤 첫 조치다.

경찰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코인으로 바꿔주고 홀덤펍 사업자가 수수료 등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권정석 기자



60주년, 그 이상의 MG

63년 경남 산청에서 출발한 위대한 걸음은

지역사회의 순수한 민족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었기에

60년의 성장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빛낼 앞으로의 100년, MG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MG새마을금고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MG새마을금고가 응원합니다



2023년 5월
세계 새마을금고의 날 선포식

2023년 1월
MG새마을금고씨름단 창단

2021년
MG새마을금고역사관 개관

2018년
통합 IT센터 건립

2000년
MG인재개발원 개원

1997년
온라인 전산망 구축

1983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1963년
새마을금고 태동

“한미일 정상 의제에 ‘오염수 가짜정보’ 대응책 포함될 수도”

내달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제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둘러싼 중국발 가짜 정보에 대한 대응책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발 가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문제의 하나로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오노 히카리코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악질적인 허위 정보 확산에 필요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지난 5월 G7 회의에서 인사하는 한미일 정상

그러면서 중국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지 않지만, 화교권을 중심으로 중국의 선전이 효력을

발휘하면 일본산 식품에 소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태평양 도서국 신문에 중국 영향을 받은 기사가 실린 적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아세안+3(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중국 측은 “원자력 사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도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해관총서(세관)가 지난 7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개시, 사실상의 수입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

/ 김지원 기자



전진당 지지자 거리 집회

“태국 총선승리 전진당, 왕실모독죄 개정 고수로 집권 실패”

태국인들은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FP)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 타협 없이 논쟁적인 정책을 고수한 점을 꼽았다.

31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0%는 ‘논란이 되는 정책들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진당이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30.5%는 ‘전진당은 실수한 것이 없다’고 답했고, 27.6%는 ‘전진당은 의회 내 정치 게임에서 패했다’고 말했다.

‘전진당이 다른 정당과 단절돼 정치적 동맹이 없다’(11.7%), ‘전진당이 태국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10.2%)는 답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6일 전국 1천3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진당이 야당이 될 경우 시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35.2%가 ‘대규모 집회

가 열리지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당국 통제하에 소규모 시위만 있을 것’(24.8%)이 뒤를 이었고, ‘통제 불가능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답은 23.7%였다.

전진당은 5월 14일 총선에서 제1당에 올라 야권 연립정부 구성에 추진했다. 피타 린찌른랏 대표가 단독 총리 후보로 나섰으나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지 못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제112조 개정, 징병제 폐지 등 파격적인 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과 보수 진영 하원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공약 철회 없이는 피타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기 어려운 구도였지만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찬규 기자

中·러 8월부터 무비자 단체관광 본격 재개…코로나 이후 3년만

“러 경제에 긍정적 영향…필요 인프라 갖춘 극동 등 수혜 볼 것”



러시아 찾은 중국 관광객

광객이 러시아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2000년 2월 무비자 단체관광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50명으로 구성된 양국 단체 관광객은 사전 절차를 밟은 뒤 비자 없이 상대국을 방문해 최대 1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한해 러시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5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140만 명이며, 이 중 120만 명이 무비자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또 2019년 한해 관광객을 포함해 중국인들이 러시아 현지에서 지출한 돈은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막심 레세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여행사 리스트를 교환했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첫 단체 관

무비자 단체관광이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선과 버스, 자동차 전용 다리 등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러시아 극동과 동시베리아 지역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아웃바운드 여행사 협회 알렉산드르 오사울렌코 이사는 “중국과의 무비자 단체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편 수가 늘면서, 양국 관광객 등 왕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 곽현미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日국민 찬성 58% vs 반대 30%”

닛케이 여론 조사 결과…기시다 내각 지지율 40%로 대체로 횡보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강행을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일본 내에서는 해양 방류를 찬성하는 시민이 반대하는 시민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28~30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904명(응답자 기준)을 전화 여론 조사한 결과 해양 방류 계획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58%인 데 비해 ‘반대’는 30%였다고 31일 보도했다.

나머지 12%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집권당인 자민당 지지율은 69%가 찬성했고 무당파층에서도 과반의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닛케이의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40%로 한달 전 조사치(39%)보다 고작 1%포인트 오른는 데 그쳤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1%로 변동이 없었다.

/ 김유정 기자

‘침몰’ 필리핀 여객선, 승선제한 규정 위반…확인된 사망자 27명

선장 “태풍에 발묶인 탑승객들 몰려” 실종자 수 파악 안돼

최근 필리핀 북부 해역에서 강풍에 전복돼 침몰한 여객선이 승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 마닐라 인근 북부 리살주(リサル州) 해안도시 비난고난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M/B 애야 이스프레스’는 사고 당시 승선원 수가 제한 규정을 넘겼다고 해안경비대는 밝혔다.

여객선에 탈 수 있는 탑승객은 최대 42명이다. 하지만 선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해안경비대 감독관에게 탑승객이 22명이라고 허위신고를 해서 운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은 해안경비대 조사에서 “당초 22명을 태우고 출발하려는데 그동안 태풍 때문에 밭이 묵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면서 몰려들었고 이를 말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많은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탑승객들은 배가 출발하자마자 강풍에 놀라 한



지난 28일 여객선이 침몰한 해역에서 구조작업중인 해안경비대원

쪽 방향으로 몰리면서 선체가 뒤집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선장과 선원 2명을 비롯해 선주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며 운항 허가를 내준 감독관은 직위 해제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집계됐다.

/ 강동준 기자

**휴가의 출발지가
휴식이라면
마음의 종착지는
이곳이겠죠**

휴가에는
녹집한 계획도 불안한 예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고 편안하며
때로는 색다른 휴식

마음이 원하는 우리 농촌에서
힐링 휴양을 보내세요

NH 농협

'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내년 착공

1년2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2026년 1천242세대 공급

서울시는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번동 모아타운 사업사업은 이날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가 승인됐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최고 35층, 13개 동 아파트단지로 조성돼 1천242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 단위(1천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번동 1~5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은 지난해 5월 승인 고시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반영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한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모아주택의 위치에 맞게 도로를 따라 동을 배치하고 저층(8~10층)과 고층(28~35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높이로 계획했다.

좁고 불편했던 골목은 넓고 안전하게 바뀐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우이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덕릉로~우이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조

성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보행자 전용 폭 6m의 입체 결정도로를 신설한다.

고집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모아주택 간 건축협정을 통해 인접한 1·2·3구역과 4·5구역은 각각 지하 주차장 2곳을 통합 설치한다.

모아주택 사업과 병행해 가로공원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도 함께 정비

한다. 일례로 모아주택 단지의 옥외공간(쉼터·소광장 등)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우이천변과 연계해 조성함으로써 단지와 우이천의 경계를 허문다.

또 우이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창변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현재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67곳을 선정해 구역 지정·고시를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총 100곳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번동 시범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빠르게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큰 관심과 호응을 얻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선도적인 정비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맨 오른쪽)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했다.

농협, 호우 피해 농가에 성금 25억원 추가 지원…총 55억원 전달

농협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성금 25억원을 추가로 전달한다고 31일 밝혔다.

25억원 중 20억원은 농협재단이, 5억원은 농·축협이 지원한다.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와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앞서 농협은 지난 18일 성금 3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합쳐 총 55억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농협은 피해 복구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겠다"고 말했다.

/ 민경호 기자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50여명이 경북 예천군을 찾아 고추밭과 인삼밭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세탁봉사를 실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농협과 축협은 8월 한 달간 자동화기기 이용 시 발생하는 출금·이체 수수료와 통장제발급 및 제증명서 발급에 발생하는 창구 수수료를 면제 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의 역량을 집중해 농업인들이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경호 기자

갤럭시 Z플립5·폴드5 내일부터 예약 판매…혜택 풍성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5 시리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삼성전자는 플립5와 폴드5의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진행한다.

이통 3사도 같은 기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전 예약 개통은 8일이다.

스테이션 혹은 25W PD 충전기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0% 할인 쿠폰,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체험권 등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플립5와 폴드5 구매 시 기존 모델을 반납하면 최대 15만원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통 3사도 같은 기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전 예약 개통은 8일이다.

/ 오은주 기자



골든퀸쌀밥은 순수 국산 쌀 품종인 '골든퀸 3호'로 제조됐다. 골든퀸 3호는 구수한 향미 품종으로 일반 즉석밥보다 차지고 텁글탱글한 식감이 특징이다. 컬리는 CJ제일제당과 협의해 제품을 추가 생산하고 이날 2차 판매에 들어간다.

컬리 관계자는 "골든퀸쌀밥이 출시 초기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고 있어 컬리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CJ제일제당과 협력해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컬리는 다음 달 3일까지 햇반, 비비고, 고麦, 백설 등 CJ제일제당 브랜드를 한데 모은 'CJ 빅세일 워크'를 통해 200여 개 상품을 최대 35% 할인 판매한다.

/ 이은정 기자

CU, 8월 한달간 미국 대표 와인 8종 할인전

편의점 CU는 8월 한 달간 미국산 대표 와인의 할인 기획전을한다고 31일 밝혔다. 1924 더블 블랙 카베르네 소비뇽, 포트배럴 피노누아, 캔들 째슨 그랑 리저브 샤도네이 등 8종을 특정 간편결제로 구매하면 20% 할인해준다.

CU는 와인 비수기인 여름철 '여발상 전략'으로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U의 계절별 와인 매출 비중을 보면 6~8월이 20%로 사계절 중 가장 낮다. 겨울철(12~2월)이 31%로 가장 크고 가을(9~11월) 25%, 봄(3~5월) 24% 순이다.

CU는 여름 와인 시장을 겨냥해 지난달 남프랑스 랑그ド 지역의 쉬라 단일 품종으로 만든 자체 브랜드 로제 와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 백도균 기자

컬리는 CJ 공동 개발한 햇반 인기…“초도물량 3주만에 완판”

컬리는 CJ제일제당과 함께 개발한 '햇반 골든퀸쌀밥'이 출시 3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달 6일 컬리 단독 상품으로 선보인 이 제품은 출시 3주 만에 준비된 물량 7천세트(210g 6개 둘이)가 모두 팔렸다. 해당 기간 컬리에서 판매한 70여종의 즉석밥 제품 가운데 판매량 4위였다.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상담문의 1855-1082



서울시,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내달 운영

맞춤 상담·서비스 신청 지원…오세훈 “단편 지원보다 빈틈없는 정책 중요”

서울시는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개관한다. 이곳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형 상담을 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연계해주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복지법인 등 다양한 지원과 연계해 주택과 병간호·생활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 동 주민센터, 병원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을 찾아 전담 기구로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등 최일선 현장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을 찾으면 전담 기구로 연계하고 초기 상담과 주요 정책 안내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가족돌봄청년 간담회

이어 개별 심층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연계하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됐는지 등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시는 하반기 중 가족돌봄청년 유형별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체계적인 대상자 발견과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로 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또 돌봄청년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조 모임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류를 지원한다.

아직 생소한 용어인 가족돌봄청년의 개념과 사업 내용, 전담 기구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반기에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일반 시민 홍보도 병행한다.

양주시 이어 동두천시도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 경쟁

경기 동두천시는 2024년 철거 예정인 태릉 스피드스케이팅장을 대신할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양주시도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두천시는 해체된 빙상단(2001~2019

년 운영)을 옮겨 재창단하는 등 빙상 스포츠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쇼트트랙 빙상장과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후보지 물색을 마치고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박현덕 동두천시장은 "김동성, 차민규 등 걸출한 동계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동

두천시야말로 빙상의 원조 도시"라며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편,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은 태릉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철거를 앞두고 있다.

/ 광명호 기자

기존의 정책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8월 중순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참여하고 싶은 민간 지원을 활용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분야별로 추가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은 누구든지 상담 전화(☎ 02-6353-0336~9)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22일 가족돌봄청년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오 시장은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을 제도권 내에 흡수하려면 단편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사례의 유형화와 빈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순철 기자



의정부 경전철

서울·인천 이어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요금

'150원 인상'…10월 7일부터 적용

내달 4일 공청회 뒤 기본요금

1천250원→1천400원

운영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철 기본요금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상해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같은 폭의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도시철도 기본요금도 현재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다음 달 4일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중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폭을 확정한 뒤 10월 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 적용에 따라 서울, 인천과 같은 수준으로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10월 7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현 기자



동두천시 빙상단 재창단
2023년 4월 13일(목) 15:00 시청 대회

얼굴부자
한국투자

알아서 잘 크는 내 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 디플트옵션

이렇게 바쁜데 퇴직연금까지 관리하라고요?
전문가가 알아서 잘 키워주는 한국투자증권 디플트옵션으로
퇴직연금도, 시간도 벌어보세요



디플트옵션
자세히보기



유의사항

가입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이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연금의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대면 계좌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1.5억원 이하 0.15%, 1.5억원 초과 0.10%이며 자산관리수수료는 0.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717호(2023-03-03 ~ 2024-03-02)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 100억 전세사기…78명 추가 적발

지난해 말 인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00억원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 70여명이 경찰에 추가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 A(47·남)씨 등 7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26명과 중개보조원 51명도 포함됐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세입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6억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바지 임대인 B(27·남)씨 등 주변 4명을 지난 달 먼저 구속해 경찰에 송치한 바 있다.

B씨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캐피터'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에게 매매 계약서에 쓸 명의를 빌려주고는 6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됐다. B씨가 주택을 사들일 때 드는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은 컨설팅 업자들이 대신 내줬다.

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바지 임대인 C(사망 당시 27세·여)씨도 B씨와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C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월저히 수사해 배후에 있던 공범들을 모두 적발했다"고 말했다.

/ 남희정 기자

“핵오염수 투기 반대” 폭염 속 거리 나선 제주 청소년들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하는 제주청소년들’이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일본 핵 오염수 투기 계획에 반대하며 폭염 속 거리로 나섰다.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하는 제주청소년들’은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태계가 파괴되고 육지도 망가질 것이며,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는 타격이 더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오염수 육상 보관 등 의 대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나. 그저 시간과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원전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일본의 이미지 회복만을 위해 주변국에 불안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제주도정을 향해 “도민 안전을 해치는 오염수 투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정부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손팻말과 현수막, 방사능 경고 표시가 그려진 우산 등을 들고 제주도청에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까지 도심을 행진했으며, 이후 제주 동문시장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 김민호 기자

‘육상인의 축제’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2026년 대구서 열린다

가족동반으로 여름휴가 보내는 스포츠 축제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2026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된다.

대구시는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WMA)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첫 대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실내·실외 경기가 격년으로 개최된다.



35세 이상 참가자가 항공료, 숙박비, 참가비 등을 자부담으로 해 열리는 유일한

세계육상경기대회로 경쟁보다는 개최지에서 가족동반으로 여름휴기를 보내는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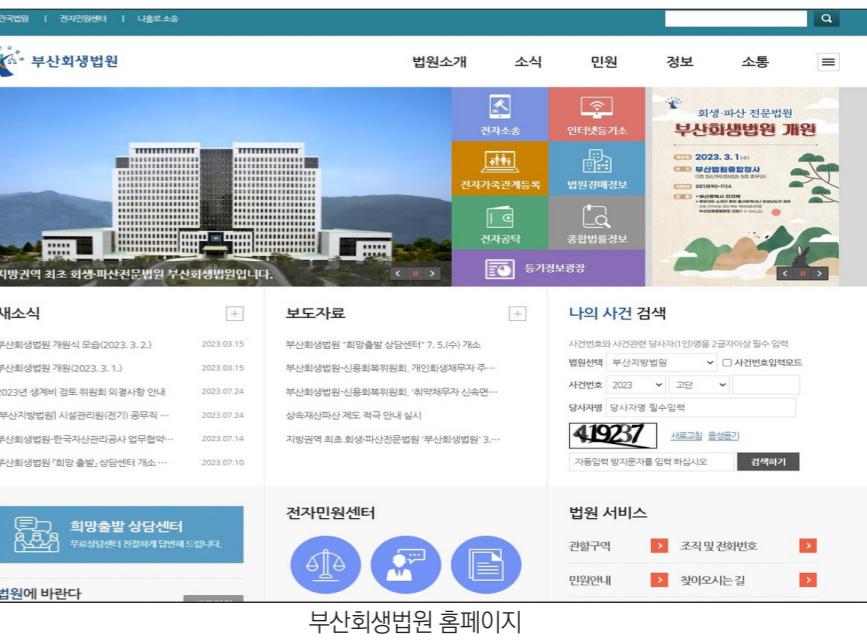
포츠 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026년 대회는 8월 중 14일간 90개국, 1만1천여명이 참가해 트랙 19종목, 필드 11종목, 로드 6종목 등 36개 종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마깃 정만(Margit Jungmann) WMA 회장의 협약 체결에 따라 양측은 참가자 모집 등 경기 운영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 및 SNS를 활용한 대회 홍보 지원, 참가자 체류 지원 등에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홍 시장은 “이 대회를 계기로 대구가 국제육상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부산회생법원 개원 후 개인회생사건

80% 증가…실업 등도 영향

부산회생법원이 올해 3월 개원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회생법원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개인회생사건은 3천229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 805건보다 78.9% 증가한 수치다.

개인파산사건도 지난해 3~6월 92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천274건으로 38.3% 증가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원 이후 개인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크게 빨라졌다.

지난해 부산지법에서 개인파산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114.9일이었으나 올해 3월 회생법원 개원 이후에는 104.1일로 열흘 정도 단축됐다.

파산 접수부터 면책 인용 결정까지는 지난해에 339.5일이 걸렸으나 올해는 293.9일로 줄었다.

/ 김민중 기자

법원 관계자는 “부산지역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늘어난 상황에서 울산이나 경남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부산회생법원에서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어 사건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이 늘어난 데에는 지역의 산업과 고용구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달 부산의 실업률은 3.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67.5%로 전남 64.8%와 강원도 64.9%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부산회생법원은 이달 초 부산지법 등 기관 1층에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소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민중 기자

창원해경,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민간 응급구조대 창설



32명의 전문 의료종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의사 2명과 간호사 29명, 응급구조사 1명 등이 자원했고, 전문 의료진으로만 구성된 응급구조대가 만들어졌다.

이날 창설식은 연 창원해경은 민·관 구조 협력체계에서 민간해양구조대의 중요성과 신설된 응급구조대의 정의와 역할 등 의료봉사를 위한 간담회도 실시했다.

장대운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수난 대비 기본 훈련 등 실제 훈련 참가를 통해 응급구조대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대령이 명하고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체계 확립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강우 기자

제주2공항 반대측 “오영훈 ‘주민투표 어렵다’며 국토부 둘러리”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끝내 도민의 대표이기를 저버리고 국토교통부의 둘러리 역할이나 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에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도민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문제야말로 주민투표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대다수 도민이 찬반을 넘어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에 따라 응급구조대, 선박구조대, 수중구조대, 드론수색대 등으로 분류 한다.

응급구조대가 전문 의료진들로만 구성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1997년 경남 통영에서 처음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 현재는 어민, 레저사업자, 잠수사 등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창원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를 구조

유형에 따라 응급구조대, 선박구조대, 수중구조대, 드론수색대 등으로 분류 한다.

응급구조대가 전문 의료진들로만 구성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창원해경은 선박과 화물선 등에서 인명사고 발생 시 전문 응급구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경남 도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형에 따라 응급구조대, 선박구조대, 수중구조대, 드론수색대 등으로 분류 한다.

응급구조대가 전문 의료진들로만 구성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창원해경은 선박과 화물선 등에서 인명사고 발생 시 전문 응급구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경남 도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형에 따라 응급구조대, 선박구조대, 수중구조대, 드론수색대 등으로 분류 한다.

응급구조대가 전문 의료진들로만 구성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창원해경은 선박과 화물선 등에서 인명사고 발생 시 전문 응급구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경남 도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형에 따라 응급구조대, 선박구조대, 수중구조대, 드론수색대 등으로 분류 한다.

응급구조대가 전문 의료진들로만 구성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오 지사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斷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해당 부처 장관(국토부 장관)이 행정 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 한다.

/ 권정석 기자

철강과 함께한 50년 미래소재와 함께할 100년

지난 50년간 철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포스코를 앞으로는 친환경 미래소재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Green Tomorrow, With POSCO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하는 시민단체

원주 열병합발전소 빌미 거액 사기·횡령 50대 15년형→5년형

배임수재·사기 혐의 일부 무죄…“범행 금액 = 이득 단정 어려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필수시설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깊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열병합발전소 사업 수행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3억5천만원을 빌린 뒤 연료 납품을 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4억8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기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 관련 업체의 자본금 35억원을 횡령하는 등 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9



원주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손팻말

천100여만원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겸찰 구형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4억8천100만원 배임수재 혐의와 사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각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얼마인지, 에너지 관련 업체에 끼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돌려마기로 갚는 과정에서 편취액이 확대된 점과 횡령·배임 범행 금액과 현실적으로 취한 이득이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백경준 기자



화순탄광 폐광

폐광 화순탄광소 협력업체 직원 12명

근로자지위 인정, 차액 임금 보존

지난달 말 폐광한 화순탄광소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뒤늦게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차액 임금을 보존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화순탄광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고 13명 모두에게 2022~2023년 차액 임금 3천900여만~1억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원고들은 사실상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 지위가 있음에도 석탄공사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김성윤 기자

피고인 석탄공사 측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바뀌더라도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근무했고, 석탄공사 측이 인사에 관여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측에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뇌물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화순탄광은 지난달 30일을 조기 폐광돼 탄광 역사 118년에 마침표를 찍었다. / 김성윤 기자

“수해 복승아 농가 도와주세요” 조치원복승아축제 내달 4일 개막

문화행사 최대한 자제…수해 농가 돋기 위한 판촉 행사 중심으로 진행



세종시 조치원복승아의 참맛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21회 조치원복승아축제'가 다음 달 4~6일 세종시민운동장을 비

롯한 조치원읍 일원에서 개최된다. 27일 세종시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조치원복승아축제는 시민의 흥을 돋우는

문화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돋기 위한 판촉 행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NH농협이 주관하는 복승아 판매전은 세종시민운동장에서 4일 오전 10시부터 펼쳐진다. 1상자(3kg) 기준 7~9과는 2만원, 10~11과는 2천2천원에 판매된다.

복승아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쿠폰 이벤트도 운영된다. 사전이벤트는 세종시문화재단 축제문화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행되고, 현장에서는 흥보부스에서 참여하면 된다.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와 SNS 게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복승아 5

천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홍보판매 촉진을 위해 복승아 가 ‘신선’들이 먹는 과일이라는 점에 착안해 ‘115년 역사의 신선한 조치원 복승아’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혜옥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장은 “수해로 시름에 잠긴 지역 복승아 재배 농가가 이 축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농촌진흥청 전신인 권업모범장이 1908년 조치원읍 봉산리에 과수 시범포를 설치하면서 복승아를 집중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현재 조치원읍과 연서면을 중심으로 700여 농가가 350여ha에서 복승아를 재배하고 있다. / 황연희 기자

로가 막혔다.

이에 따라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산란·성장하는 벤장어 등의 수산자원이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삽교호와 아산호의 배수갑문 보수공사로 어류가 소통할 수 있는 어도가 설치돼 생태계의 작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영인면 구성리에서 열린 방류행사에서 “지속적인 방류사업 확대로 안정적인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매년 1억5천만원가량을 투자해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아산호에 ‘벵어’ 자원 조성을 위해 수정란 560만개를 이식했다.

아산호·삽교호에 ‘벤장어’ 치어 2만마리 방류



치어 방류하는 박경귀 시장(오른쪽 3번째)과 어민들

충남 아산시는 28일 영인면 구성리 아산호와 선장면 궁평리 삽교호에 벤장어 치어 2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산호와 삽교호는 1973년과 1979년에 각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어류의 이동 통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 도복 입고 태권도 체험한다

8월 1~12일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체험한다. 28일 태권도진흥재단에 따르면 잼버리 기간에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에서 태권도를 체험한다.

오는 30일과 8월 14일에는 멕시코 400여 명과 아일랜드·호주 참가자 480여 명이 태권도원을 찾아 상설공연 관람과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을 통해 태권도를 즐기게 된다.

8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160여명의 참가자가 매일 태권도원에서 상설공연 관람과 전망대 견학, 헬링 태권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참가자 전원이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기본동작을 익히는 헬링 태권체조를



외국 청소년들 태권도 체험 장면

체험한다.

재단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해 태권도원 종합안내, 통역, 체험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를 체험하는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태권도의 멋과 예의를 알려 잼버리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대한민국 국격 신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윤 기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Cool하게 낮부터 거래하는 미국주식

“밤에만 거래하란 법은 없으니까!”

하나증권 미국주식 주간거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서머타임 적용]

(서머타임 미적용 시: 오전10시 ~ 오후 5시30분까지)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란?

미국주식을 국내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신청없이 기존에 거래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문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별로 상이하므로(주로 국가 온라인 수수료 : 미국 0.25%, 중국 0.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 바랍니다. ※미국 주식 매매 시 주당 0.003USD, 매도 시 0.0008% 제비용이 부과되며 기타 해외주식 거래 제비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깨비증권 Change Our Life 해운대

작년 양양에 이은 두 번째 플로깅 캠페인!

CHANGE KB
OUR LIFE

PLOGGING
TOGETHER!!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KB증권이 실천합니다!

KB 증권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우크라 꺾고 세계선수권 단체전 동메달

개인전 '악수 거부' 실격 하를란, 한국과 3·4위전 등 단체전 출전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4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지수, 전하영(이상 서울특별시청), 전 은혜(인천광역시 중구청), 최세빈(전남도 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30 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3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헝가리, 프랑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9년 대회 동메달 이후 4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입상했다. 그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 2021년엔 대회가 열리지 않았고, 한국은 지난해 대회 땐 11위에 그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16강전에서 투르키예를 45-21로, 8강전에선 아제르바이잔에 45-43 신승을 거뒀다.

준결승전에서 헝가리에 39-45로 패해 3·4위전으로 밀렸으나 우크라이나를 45-32로 제압하고 시상대에 섰다.



3·4위전 승리에 기뻐하는 여자 사브르 대표팀

이날 우크라이나 여자 사브르팀은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러시아 선수와 경기 후 악수를 거부했다가 실격당했던 올하를란이 출전했다.

하를란은 개인 64강전에서 러시아 출신 선수인 안나 스미르노바를 15-7로 물리쳤으나 이후 경기 규정상 의무로 명시된 악수를 하지 않아 실격됐다. 우크라이나

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 중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개인전 실격으로 내년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

에 필요한 세계랭킹 포인트를 딸 기회가 사라진 하를란에게 올림픽 출전을 약속했고, 국제펜싱연맹(FIE)은 하를란의 단체전 출전은 허용했다. 하를란은 한국과의

3·4위전에서 패배 팀의 메달 획득이 불발되자 아쉬움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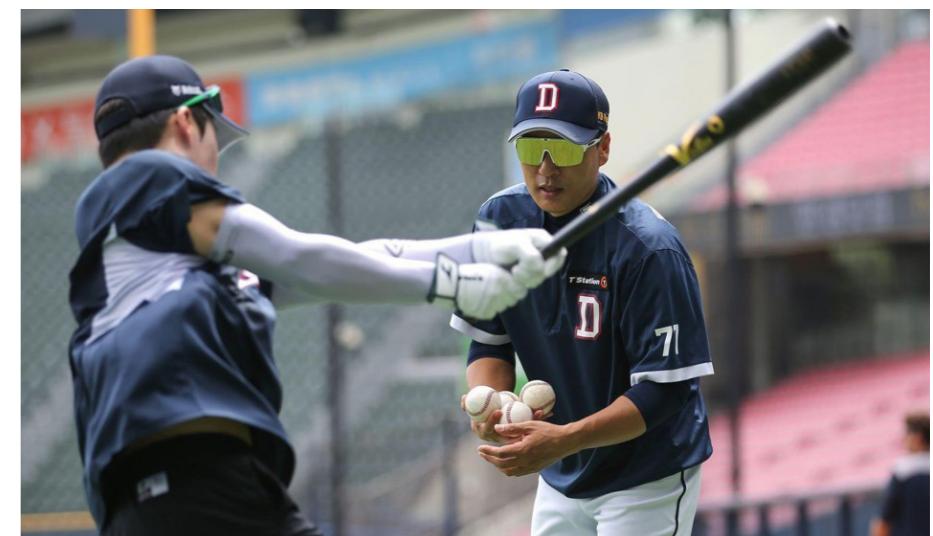
여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전 헝가리가 프랑스를 45-38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이날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선 7위 자리에 메달을 추가하지 못한 한국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은메달 1개(남자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2개(여자 에페 단체전·여자 사브르 단체전)를 따내 종합 7위로 마쳤다.

한국 펜싱은 2017년 처음으로 종합 3위(금1·은2)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지난 해(금3·종합 2위)까지 세계 '톱3'을 지켜왔으나 올해는 개인전에서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고 금메달을 기대한 남자 사브르의 단체전 5연패 불발 등 여파로 3위 이내를 지키지 못했다.

종합 우승은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의 개최국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 고영찬 기자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

[프로야구전망대] '여름의 마법사'

kt, SSG·두산 상대로 3위 도약 시동

6월 아래 승률 1위를 질주하는 kt wiz 가 '여름의 마법'을 부려 3위로 치고 올라설 수 있을까. 6월 초만 해도 순위표 밑바닥에 있던 kt는 두 달도 안 돼 5위로 도약하더니 이젠 3위를 넘보는 요술로 중위권 판도를 헤집어놨다.

kt는 지난 주말 NC 다이노스와의 창원

NC-롯데 '벼랑 끝' 사직 3연전

5연패 두산과 달라진 한화의 대전 3연전도 흥미

3연전을 썩쓸이했다. 4위 NC와의 승차를 없앤 kt는 3위 두산 베어스를 1경기 차로

쫓는다. kt는 6~7월 두 달간 치른 42경기에서 28승 14패, 승률 0.667의 놀라운 성적으로 급반등했다. 이 기간 kt는 6연승 한 번, 4연승 3번을 기록해 무서운 속도로 승수를 쌓아간 끝에 승률 5할을 회복했다.

최대 강점인 선발 야구가 위력을 떨치면서 kt가 제 궤도에 진입했다. 6~7월에 고영표와 웨스 벤자민이 5승씩 수확했고, 배제성과 윌리엄 쿠에바스가 3승씩 거들어 kt는 선발승으로만 17승을 따냈다.

이번 주 2위 SSG 랜더스, 두산과 차례로 맞붙는 일전은 kt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늠할 좋은 기회다.

kt는 SSG에 5승 4패로 근소하게 앞섰고, 두산과는 4승 1무 4패로 팽팽한 접전을 치렀다. 벤자민·고영표·쿠에바스·엄상백·배제성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선발진이 상승세를 8월에도 이어간다면 kt는 중위권 대혼전에서 벗어나 LG 트윈스·SSG 양강 체제를 뒤흔들 복병으로 도

시즌 운용에 숨통이 열리는 터라 NC와 롯데 종력전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 4연패→5연승→8연패로 롤러코스터를 탄 NCL과 연승 없이 3연패만 세 차례 당한 롯데 모두 먼저 연패를 끊는 계급선무여서 8월 1일 3연전 첫 경기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크다.

구단 최다 연승 신기록(11연승) 수립 후 난데없이 5연패에 빠진 두산은 올해 6승 3패로 앞선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연패 탈출을 시도한다. 다만, 두 달 만에 격돌하는 한화는 바닥을 맴돌던 그때 그 팀이 아니어서 두산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는 6월 아래 20승 1무 18패를 거둬 같은 기간 두산의 승률(0.525)을 1리 앞섰다.

토머스 파노니~마리오 산체스~양현종~이의리~윤영철로 선발진을 개편해 선발 야구로 상위권 도약에 시동을 건 KIA 타이거즈는 삼성 라이온즈, 한화를 상대로 이번 주 승수 쌓기에 도전한다.

/ 최준용 기자

홍현석, 벨기에 프로축구 개막전서 어시스트



기자회견 하는 홍현석

벨기에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홍현석이 2023-2024시즌 개막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홍현석의 소속팀 헨트는 31일(한국시간) 벨기에 헨트의 캔터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시즌 벨기에 프로축구 주필리리그 1라운드 KV 코르트레이크와 흄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선발로 출전한 홍현석은 후반 31분 교체됐으며 전반 30분 위고 쿠이퍼스의 득점으로 어시스트했다.

/ 임승호 기자

1-1로 맞선 상황에서 코너 키커로 나선 홍현석이 올려준 공을 쿠이퍼스가 헤더로 마무리해 2-1을 만들었다.

지난 시즌 리그 경기에서 6골, 6도움을 기록하는 등 공식전 9골, 90어시스트의 성적을 낸 홍현석은 2023-2024

시즌 첫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며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했다.

9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된 홍현석은 이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키 패스(3회)를 기록했고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평점 7.21점을 받았다. 팀에서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이다.

헨트는 8월 4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예선 MSK 질리나(슬로바키아)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 임승호 기자

신수민·이환희, 균대5종

U-19 세계선수권 혼성계주 동메달



3위에 오른 신수민과 이환희

신수민과 이환희(이상 서울체고)가 2023 균대5종 19세 이하(U-19)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혼성계주 동메달을 학

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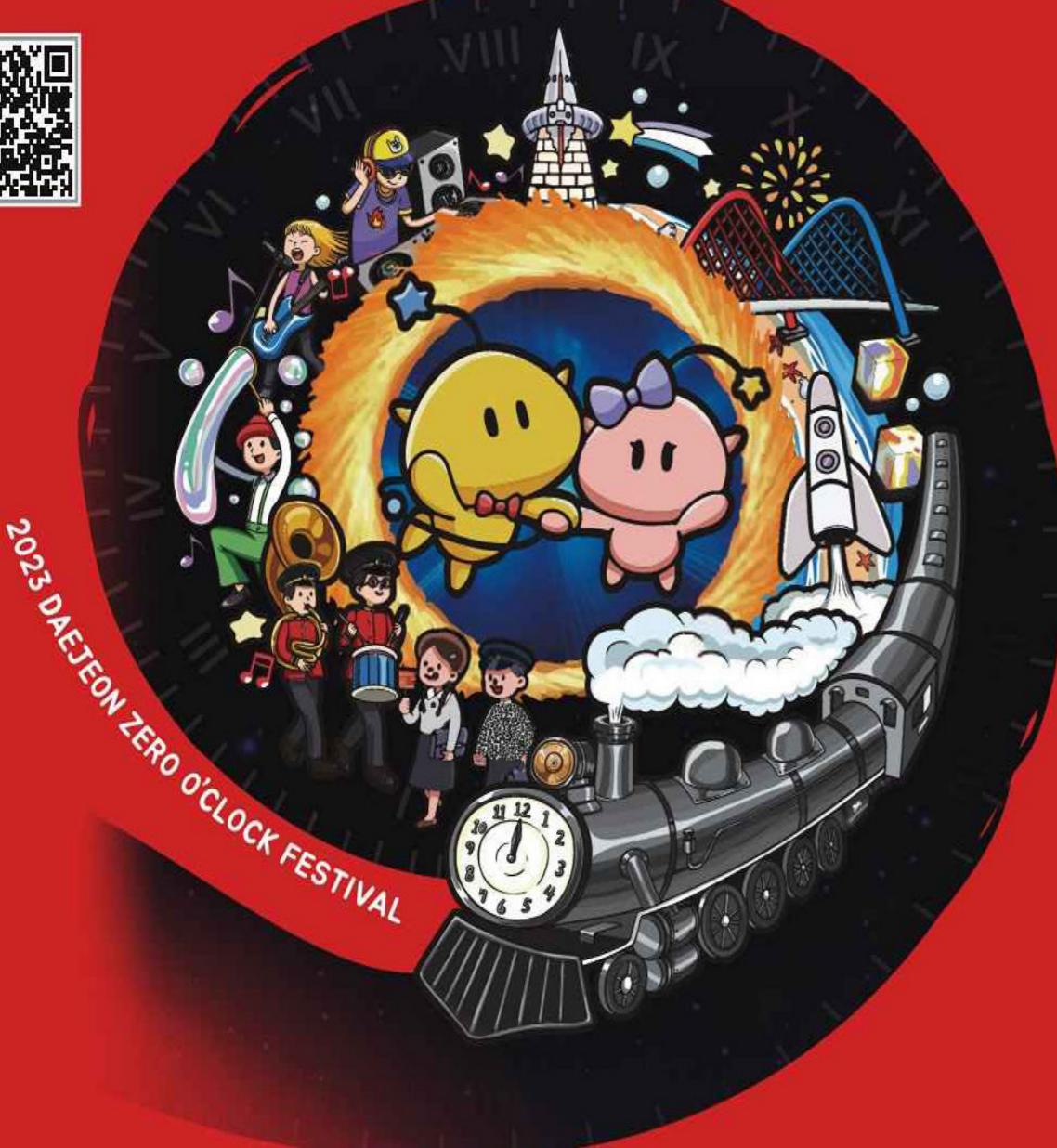
신수민과 이환희는 30일(현지시간) 뷔르카에 이스탄불에서 열린 대회 혼성계주 경기에서 총점 1천324점을 따내 3위에 올랐다.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신수민은 2번째 메달을 따내며 대회를 마쳤다.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하나씩 획득해 대회를 마감했다. 앞서 조한서(부산체고)와 이주찬(서울체고)이 남자 계주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물 경기가 새로 운 종목으로 추가돼 체력적 부담이 상당했으나 한국 선수단은 이런 변화에 문제 없이 적응해내며 3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 조윤성 기자



2023 대전 O시축제

8.11.(금) - 17.(목)

중앙로 일원(대전역-옛 충남도청)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한민국 골목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미래의 길을 잊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